

6월 23일 뉴스 종합 정리

2009년 6월 23일

리서치센터

02) 2009-7083

hsjeong@leading.co.kr

제목	주요 내용
<p>美 증시, 세계은행발 충격..다우 2.3%↓</p>	<p>뉴욕증시가 22일(현지시간) 큰 폭으로 하락했음. 다우 지수는 200포인트 이상 떨어졌고, S&P 500 지수는 근 한달만에 900선을 하향 이탈했음. 세계은행이 올해와 내년도 세계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한 점이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을 자극하며 매물을 불러들였음.</p> <p>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200.72포인트(2.35%) 하락한 8,339.01을,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1.28포인트(3.35%) 급락한 1,766.19를, 대형주 중심의 S&P 500 지수는 28.19포인트(3.06%) 떨어진 893.04를 기록했음. 이중 S&P 500 지수는 5월 27일(종가 893.06포인트) 이후 처음으로 심리적 지지선인 900선을 뚫고 내려갔음.</p> <p>뉴욕증시는 세계은행의 경제전망치 하향 조정 소식으로 출발부터 약세였음. 특히 이번주 예정된 경기지표들은 대체로 개선추이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, 마침 이날은 경기지표가 발표되지 않은 까닭에 세계은행 약제가 더욱 크게 작용했음.</p>
<p>美 증시 하락에 공포지수도 급등</p>	<p>뉴욕증시의 변동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시카고선물옵션거래소(CBOE)의 변동성지수(VIX)가 급등세를 보이며 장중 30을 넘어섰음. 이는 향후 30일간 증시가 30%나 등락할 수 있음을 의미함. 통상 지수가 30을 넘으면 높은 변동성과 더불어 약세장의 시그널로 해석됨. 이 시간 현재 VIX는 3.18포인트(11.36%) 급등한 31.17을 기록했음. 특히 VIX 지수는 주가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VIX가 높다는 것은 미국의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 만큼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VIX 지수는 공포지수로도 불림.</p>
<p>세계은행, 올 세계경제 전망치 -1.7% → -2.9%</p>	<p>세계은행(WB)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-2.9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고 이는 지난 3월에 예측했던 -1.7%에 비해 하락폭이 더욱 확대된 수치임. 세계은행은 내년에는 글로벌 경제가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서겠지만, 2010년 성장률은 당초 전망치인 2.3% 보다 낮은 2%를 예상했고 2011년은 3.2%를 내다봤음. 세계은행의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(IMF)에 비해 더 비관적임. IMF는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 1.3% 하락한 후 내년에는 2.4%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. 세계은행은 올해 글로벌 교역 감소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6.1%보다 더 큰 9.7%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고 특히 이같은 교역감소 여파로 각국의 경기위축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음. 세계은행은 이에 따라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당초 -2.4%에서 -3%로, 일본은 -5.3%에서 -6.8%로, 유로지역은 -2.7%에서 -4.5%로 각각 수정했음.</p>

제목	주요 내용
루비니 교수 "주식시장 큰 조정 온다"	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22일(현지시간) CNBC와의 인터뷰에서 "국제유가와 장기금리 상승, 대규모 예산적자 등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을 줄 것"이라고 밝혔고 국제유가는 연말까지 100달러선까지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음. 그는 이에 따라 "미국 경제가 내년말까지는 `더블유(W)자` 형태의 리세션인 `더블딥` 리스크가 있다"고 우려했음. 루비니 교수는 특히 향후 몇개월내로 미국의 실업률은 11%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고 아울러 유럽지역의 실업률도 10%선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음.
日 대기업 심리 개선 `뚜렷`..바닥론 지지	일본 재무성과 내각부가 공동으로 조사하는 분기별 기업심리지수는 지난 1분기 -51.3에서 -22.4까지 반등. 대부분의 기업들은 향후 사업여건이 덜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지난 1분기 일본 경제가 바닥을 쳤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 및 연구기관 분석을 뒷받침. 내각부 관계자는 "거의 모든 산업영역에서 마이너스(-) 수치가 전분기대비 줄면서 일부 경제 영역에서 개선신호가 나타나고 있다"고 평가. 업종별로는 수출과 산업생산 반등에 힘입어 제조업 대기업들의 심리지수가 -66에서 -13.2로 크게 개선됐고, 비제조업체 심리지수 역시 -42.6에서 -27.8로 반등했음.
中 국유기업 주식 10% NSSF에 양도해야	중국 재정부는 국유기업들이 기업공개(IPO) 물량의 10%에 달하는 주식을 NSSF에 넘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. 만약 양도 물량이 10%에 미치지 못한다면, 해당 국유기업은 모든 국가 소유 주식을 반납해야 한다고 재정부는 밝혔음. 이기업들의 시가총액은 639억3000만위안(93억5000만달러) 가량이다. 재정부는 이 방침을 향후 상장 예정인 기업들에게도 적용할 전망.
WB 부총재 "한국 하반기 본격 회복세"	저스틴 린 세계은행(WB) 부총재는 22일 "한국이 하반기 들어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"이라며 "OECD국가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기록할 것"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음. 린 부총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WB의 `개발경제컨퍼런스(ABCDE)` 공동 기자회견에서 "한국은 올해 -3~-3.5% 역성장한 뒤 내년에는 2%로 회복되고, 2011년에는 (잠재성장률 수준인) 4~5%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"이라고 예상.
현대차, 美 신차품질 1위..도요타 제쳤다	현대차는 22일 미국의 권위있는 시장조사기관인 J.D.파워가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`2009년 신차품질조사(IQS)`에서 고급차 브랜드를 제외한 23개 일반차 브랜드 가운데 1위(95점)를 달성했다고 밝혔음. 불황속에서도 시장점유율을 확대해오더니 품질로도 명실공히 세계 최고임을 인정받은 셈. 현대차는 특히 제너럴모터스(GM)와 크라이슬러가 파산 보호를 신청하는 등 미국 자동차 `빅3`가 고전하고 있는 틈을 타 시장을 더욱 공격적으로 파고들고 있음. 뉴욕타임스(NYT)는 이에 대해 "40여년전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모습을 연상시킨다"고 평가.

<참고>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.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.